

# 익산시 전통시장, 문화시장으로 변모 시도

### 다양한 맛집·의류특화 중앙·매일·서동시장 활성화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 선정

익산의 전통시장들이 문화시장으로의 변신을 시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중앙·매일·서동시장이 중소기업부가 주관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공모사업에서 문화관광형시장에 2회 연속 선정됐다.

중앙·매일·서동시장은 다양한 맛 집과 의류특화시장이라는 특징과 원도심과 익산역 근처라는 접근성이 더해져 청년층과 외국인까지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시장은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3년 동안 17여억원을 지원받아 야시장과 푸드트럭, 다양한 문화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관광형 전통시장으로의 기초를 다져왔다.

이들 시장은 지역 최초의 야시장을 기획·운영해 기존 주말 대비 방문객이 300% 상승하고 매출은 200% 뛰었다.

또 지역 내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전통시장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외국인 대학생 대상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외국인 고객층의 150% 증가를 이끌었

다.

이런 3년간의 사업 추진 결과 올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지로 재선정됐다.

이들 시장은 오는 2021년까지 2년간 국비 4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9억2000만원을 활용, 관광자원과 연계한 문화·관광 특화시장으로 조성된다.

각 시장은 특색 있는 먹을거리와 체험 플리마켓 운영 등 독창적인 야시장 문화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해 문화체험 야시장으로써의 입지를 구축한다.

이와 함께 익산역과 연계해 지역 관광자원을 돌아볼 수 있는 투어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아티스트를 활용한 상설 공연을 진행하는 등 테마파크형 시장으로 변신을 꾀한다.

이를 통해 젊은 소비자와 다문화 가족들이 찾는 전통시장으로 발전시켜나간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시는 상인 공동체 조직을 활성화해 자생력을 키우고 동아리 활동 등으로 상인들의 자존감과 역량을 높여 적극적으로 친절한 상인들의 문화를 정착시킬 예정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3곳 전통시장을 비롯해 앞으로 익산의 각 전통시장별로 특화요소를 개발하고 발굴해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이야기와 문화를 뜻깊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적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 남원시,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속도'

### 기본계획수립 용역 착수보고회...전북도 교부금 5억원 지원

남원시가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보고회를 갖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사진>

친환경 전기열차는 전기 등 친환경 동력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 자연훼손을 최소화 환경 친화적으로 운영된다.

시는 산악지역 주민들의 교통기본권 확보와 산악관광 다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광모델로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왔다.

시는 전북도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지원받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번 용역은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법적기준, 차량·궤도시스템 선정,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교통수요 예측, 편익 및 비용산정,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대체이동수단 검토 등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진다.

또 새로운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을 마련하고, 궤도운송법에 의한 궤도사업 승인에 필요한 각종 기준 등도 도출할 예정이다.

이한주 남원시장은 "국내 처음으로 추진되는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인 만큼 어려움이 컸지만, 국토부 정책연구와 함께 기본계획 용역 착수로 전기열차 도입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순창 발효소스 토굴을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관에 설치된 VR(가상현실)기기를 이용해 체험을 하고 있다. <순창군 제공>

# 순창군, 기능성 게임 콘텐츠 구축 나선다

### 전북문화콘텐츠진흥원 공모 선정 총 4억원 투입 순창 전통요리 가상체험 콘텐츠 제작·전시 계획

순창군이 최근 (재)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공모사업인 '기능성 게임 콘텐츠 제작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오는 2021년 완공 예정인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을 전시할 콘텐츠를 사전 제작, 안내 대표 관광지에 우선 설치해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에 제작하는 콘텐츠는 오락과 교육, 체험과 훈련 등을 모두 아우르는 혼합현실(MR)을 기반으로 순창 전통요리와 글로벌

요리를 가상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

(주)기어즈소프트가 주관하고 (주)노바게임이 참여하는 이 사업은 국비 2억원을 포함해 총 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군은 그동안 발효 테마파크 내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에 전시할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여왔다. 이는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는 순창만의 차별화되고 특화된 이색적인 체험거리의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실제 요리하는 과정을 적용해 1인 또는 다수가 함께 재료를 썰고 데치고 볶는 과정을 가상으로 진행하는 등 생동감 넘치는 요리 만들기 체험을 위한 MR 콘텐츠를 올해 말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건 순창군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월드푸드 사이언스관을 식품산업과 관광자원이 융합하는 거점 시설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시설을 개발, 구성해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

## 연안 방파제 등 안전사고 예방 군산해경, 위험지역 전수조사

해경은 전북 군산지역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지역 전수조사와 정기점검을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조사·점검 대상은 지역 항·포구와 방파제, 갯벌(갯골), 간출암, 무인도서, 연육교, 선착장 등으로 총 17개소를 위험지역으로 지정 관리하기로 했다.

전수조사는 각 파출소별로 1차 예비조사를 펼친 뒤, 지역 어촌계장 등 지역 전문가와 함께 2차 조사, 군산시·군산해수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3차 점검까지 실시했다.

위험도 등급별로 A 5개소(내항, 소룡포구, 비응항, 야미도 갯바위, 장자도 갯바위)와 B 6개소(군산항 남방파제, 신시도 몽돌해변 갯바위, 쥐똥섬, 신시도 갯벌체험장, 선유1항, 선유3-2항)다. 또 C급은 연도 선착장, 신시도 배수갑판 일원, 가력도 배수갑판,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말도 방파제, 신치항 방파제 등 6곳이다.

해경은 이번 위험지역 전수조사에 따라 구조인력과 장비 배치, 순찰 범위와 횡수 등 연안해역 안전관리를 위한 후속 대책이 이어질 전망이다.

또 전수조사 기간 중 인명구조 장비,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물 설치상태 점검에서 미비한 사항 18건을 파악, 관계기관 등에 통보해 시정할 계획이다.

김도훈 해양안전과장은 "위험지역 전수조사는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추락, 익수, 고립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을 평가해 위험도에 따라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목표로 추진했다"면서 "연안해역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이며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지속해서 실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 고창 공산권역 마을 4년간 100억 투입 개발

###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고창군 공산권역 마을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하는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고창 공산권역은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총 100억원이 투입된다.

이를 통해 국화공동생활촌, 활피마을 문화관 등 기초생활기반이 확충되고 국화중자원과 빈집공유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을 높일 예정이다.

인근의 국화공원과 골목국화정원 등 지역경관개선 사업과 지역역량강화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 정읍시, 초여름 날씨 해충 집중방역

정읍시가 일찍 찾아온 초여름 날씨로 '위해 해충'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집중 방역에 나선다.

정읍시 보건소는 21일부터 하절기 취약지역과 인구 밀집 지역의 야간방역을 위해 4개 방역기동반을 편성, 친환경 야간 연무소독을 실시한다.

하절기 집중 방역은 오는 10월2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특히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인구밀집 지역에 확산제를 이용한 친환경 연무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 덕남동, 임야

- 덕남동, 992㎡(300p),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공유자임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기획부동산 물건 아님
  - 회사 사정상 급매, 4500만원
- 문의. 010-6834-7400